자살보도 권고기준 2.0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자살예방센터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자살 보도 권고 기준 2.0' 9가지 원칙

1.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5.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6.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7.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8.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9.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CONTENTS

전 문 02

제1장
자살 보도는 기본적으로 최소화한다 04

제2장
최소한의 자살 보도에서도 이것만은 절대 하지 않는다 06

제3장
자살 보도의 사회적 • 거시적 영향을 인식한다 11

제4장
자살을 예방하는 보도를 한다 14

제5장
인터넷 환경의 특성에 유의한다 17

전 문

자살 보도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자살 보도가 자살 빈도와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의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수많은 국내외 연구는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 직후에 자살 시도가 급증하며,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과 내용이 후속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모두 자살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 사건이나 자살과 관련된 사안을 보도하는 기자는 자신이 쓴 기사로 그러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사람, 특히 삶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청소년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가 자살을 결심하거나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는 모방 자살을 부릅니다. 자살 방법과 장소에 대한 보도가 막연하게 자살을 고려하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 혹은 장소에서 자살을 실행할 구체적 결심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살 원인을 단정하는 보도는 동일 혹은 유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는 또한 자살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유용한 수단이라고 학습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 등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자살의 유용성'에 대한 경험으로 축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보도를 통해 자살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믿음을 없애고 주변인들이 자살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이들을 돕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자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살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살 시도만으로도 중대한 신체적, 심리적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살률이 매우 높은 나라이며,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중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WHO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언론 보도로 인한 자살의 증가를 막기 위해 이미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자살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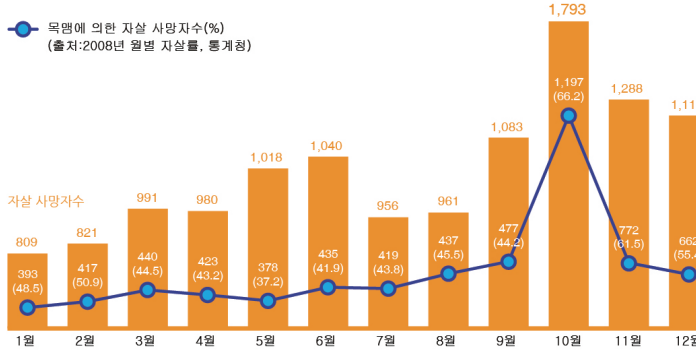
이 '자살 보도 권고 기준 2.0'은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미디어뿐만 아니라 블로그,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사회적 소통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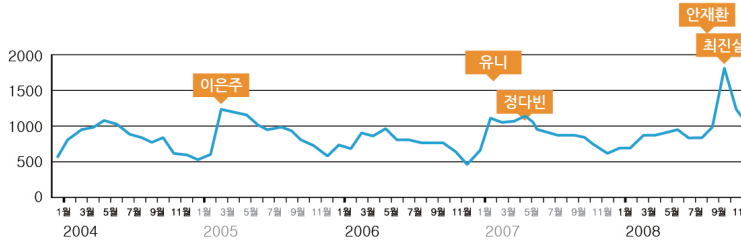
제1장
자살 보도는 기본적으로 최소화한다

제1조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1 자살에 대한 보도는 무조건 자제해야 합니다

자살 보도는 더 많은 자살을 초래하며, 자살 보도의 의도적인 자제가 자살률을 낮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자살 사망자 수

- 오스트리아에서는 1978년 지하철이 처음 개설된 이후, 지하철에 뛰어드는 것이 가장 대중적인 자살 방법으로 떠올랐다. 게다가 미디어가 지하철 자살을 드라마틱하고 충격적인 기사거리로 보도하면서 자살과 자살 시도 빈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오스트리아 자살예방협회(OVSKK)는 이에 비엔나의 신문에 실린 자살 보도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 이 연구에 따라 언론 보도 지침을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하고, 자살 사건 보도 시, 이 원칙을 따라 줄 것을 부탁하였다. 효과는 바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1988년부터 지하철 자살률이 급격히 떨어져 안정되었다. 전체적인 자살률도 약간 낮아졌으며 다른 수단을 이용한 자살률이 늘지도 않았다. 오스트리아의 사례는 자살 보도를 금지하지 않고도 언론과의 협동하에 자살 보도의 질을 높여 모방 자살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좋은 예가 되었다.

2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보도의 가치는 없습니다

자살 보도를 하려면 먼저 그 보도로 인해 자살을 시도할 다수의 사람들의 희생을 감수할 정도의 보도 가치가 있는가를 자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스스로 확신이 있을 때로만 자살 보도를 한정해야 합니다. 흥미를 유발하거나 특종 · 속보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3 자살 보도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사회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언론은 자살 보도에 앞서 사회의 중요한 현상이나 문제를 보여 주는 손쉽고 주목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를 자문해야 합니다.

4 보도 가치가 높아 보이는 자살 사건의 보도가 더 많은 자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자살 보도가 자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당사자와 가족 등 주위 사람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자살 사건일수록 보도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유명 연예인 자살 이후 2개월간 자살자 수 및 자살 증가 효과 추정치

(단위:명)

	이은주 씨 (2005.02.)	유니 씨 (2007.01.)	정다빈 씨 (2007.02.)	안재환 씨 (2008.09.)	최진실 씨 (2008.10.)	평균
유명 연예인 자살 사건 후 2개월간 자살자 수(A)	2.568	2,330	2,304	2,876	3,081	2,631.8
자살 사건 전 년도의 동일 기간 자살자 수(B)	2,154	1,822	1,992	1,961	1,807	1,947.2
자살 사건 다음 연도의 동일 기간 자살자 수(C)	1,992	1,812	1,971	2,403	2,339	2,103.4
기대치 (E=B와 C의 평균)	2,073	1,817	1,981.5	2,182	2,073	2,025.3
자살 증가 효과 추정치(A-E)	**495**	**513**	**322.5**	**694**	**1,008**	**606.5**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제2장
최소한의 자살 보도에서도 이것만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제2조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1 제목에는 ‘자살’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넣는 것을 피해야 하며, 특히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경우에도 제목이 아니라 본문 내용을 통해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살을 범했다’ 등과 같이 자살자와 주변인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결과를 낳는 표현을 삼가야 합니다.

‘급여 횡령 혐의’ 사전영장
김종학 PD 고시텔서 자살

"가족들에 미안" 유서 남겨

출연료와 급여 미지급 문제 등으로 고소돼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던 유명 드라마 PD 김종학씨(62·사진)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한 고시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오전 10시1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고시텔에서 김씨가 숨져 있는 것을 관리인 이모씨(59)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이틀 동안 무숙하기로 했는데 퇴실 시간이 지나 방정리를 하러 가보니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침대 위에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다. 욕실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이 있었고, 출입문 틈에는 모두 청색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다. 방 안에서는 김씨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19일로 잡혔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검찰과의 협의 끝에 이날 오전 심사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변호인 입회하에 한 차례 소환조사를 했다"며 "조사 과정에 강압 등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방송된 드라마 <신의>를 제작하면서 출연료 미지급 등의 문제로 피소돼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신의>는 100억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배우들의 출연료 지급이 지연되자 배우들과

‘드라마 거장’ 김종학의 모래시계 멈추다

분당 고시텔서 숨진 채 발견

방에 연탄불 피운 흔적… "가족에게 미안하다" 유서

드라마 '신의' 관련 배임 혐의 수사 부담 느낀 듯

방송관계자·배우 조문 잇따라… "큰별 졌다" 애도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드라마계의 거목' 김종학(62·사진) PD가 23일 오전 경기도 분당의 한 고시텔에서 연탄불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방에서 함께 발견된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씨는 지난 5월 SBS 드라마 '신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피소, 지난달 2차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중국에 체류하던 김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에서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받았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19일로 잡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가 외주 제작해 지난해 방영한 '신의'는 방송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기자가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김종학프로덕션에서 오랜 시간 일한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은 "(고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던 것이 이유가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씨와 최근까지 함께 일한 다른 지인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연출가였는데 자금 압박과 경찰·검찰 수사는 당사자에게 견디기 어려운 부담이었을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씨는 한국 드라마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거목이다. 경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MBC에 PD로 입사한 그는 작품을 꿰뚫는 연출력과 뛰어난 현장 장악력이 돋보였다. 1981년 '수사반장'을 시작으로 '다산 정약용'(1983), '영웅시대'(1985), '인간시장'(1988) 등을 거치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그를 스타 PD로 부상시킨 작품은 1992년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였다. 송지나 작가와 호흡을 맞춘 작품으로 최고 시청률이 70%를 넘었다. 1995년 MBC에서 나와 제작사를 차린 그는 SBS 드라마 '모래시계'로 최고 시청률 64.7%를 기록하며 또 한번 신드롬을 일으켰다. 2007년에는 550억원이 넘는 제작비를 들인 판타지 드라마 '태왕사신기'를 내놓았다.

그는 백상예술대상 연출상을 네 차례나 받았고, 한국방송대상 연출상·작품상, PD연합회대상 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이날 빈소에는 방송·연예·영화계 관계자들이 찾아와 고인을 추도했다. '모래시계'의 주연인 배우 고현정은 드라마 촬영을 중단하고 빈소를 찾아 슬픔에 복받쳐 눈물을 쏟았다.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한 배우 박상원도 빈소를 지켰다. 그는 "오늘날 한류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 분"이라며 "너무 큰 손실이고 아깝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씨의 빈소는 경기 분당 차병원에 차려졌으나 공간이 협소해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로 옮겨졌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25일 오전 8시다. 장지는 성남 영생관 메모리얼파크로 정해졌다.

제목에 ‘자살’ 단어를 쓰지 않고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자살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자살이라고 명확하게 판정되기 전까지는 사인을 자살로 추정하거나 단정하는 보도를 삼가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남긴 글을 근거 없이 ‘유서’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글이 발견되어 전문가가 분석 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델 김유리 음독자살

모델 김유리(22)가 19일 새벽,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김유리는 18일 저녁 음독자살을 기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 의료원 강남분원으로 이송됐으나 19일 새벽 사망했다. 현재 빈소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1989년생인 김유리는 2007년 슈퍼모델 선발대회로 선발대회로 데뷔한 후 서울컬렉션을 비롯, 숱한 패션쇼 무대에서 모델로 활동해 왔다.

김유리는 지난 16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백 번을 넘게 생각해 보아도 세상에 나 혼자 뿐

돌연사 ‘모델 김유리’ 국과수 부검

“死因 불명… 거식증은 아니다”

▒ 자살이냐 타살이냐 거식증이냐 등 사망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모델 김유리(22)가 돌연사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최종 부검결과가 나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김씨의 사인을 돌연사로 결론 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결과 외상 흔적이 전혀 없어 타살 가능성은 없으며 자살로 단정지을 만한 명확한 사인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체내에선 신경안정제를 포함해 평소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했던 몇가지 약물이 검출됐지만 이는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양은 아니며 갑작스러운 심근경색 징후 등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08년과 올해 1월, 양친을 차례로 잃으면서 우울증 증세를 보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이 저체중이긴 하나 평소에 모델일을 위해 특별한 다이어트를 한 적도 없고 체내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만큼 거식증이 아니다"고 말했다.

자살로 보도되었으나 자살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3 자살 보도는 주요 지면을 피해야 합니다

자살 보도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드러지게 편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신문의 1면이나 각 면 머리기사, 방송 뉴스의 첫 기사, 인터넷 뉴스의 첫 화면에 자살 보도를 배치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4 자살과 관련된 언어 표현은 신중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정치적 자살' · '억울한 자살' 등과 같이 자살을 다른 맥락에서 사용해 자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둔감하게 만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등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을 '동반 자살'로 표현하는 것과 같이 사안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사의 주목을 높이기 위해 '연이은 자살' · '또 자살'과 같은 선정적인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자살 전염'과 같이 자살이 유행한다는 식의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자살 성공' 혹은 '자살 실패'보다는 '자살로 사망' 혹은 '자살 미수'가 더 나은 표현입니다.

"빚에 생활고 심해"… 부인·딸에게 수면제 먹이고

40대 가장도 동반 자살

대전에서 사업을 하다 수억원의 빚을 져 생활고를 겪던 40대 부부와 딸 등 일가족 3명이 동반 자살했다.

8일 오전 10시 20분쯤 대전 서구 월평동 주택가 도로에 주차된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에서 김모(42·자영업) 씨가 버스 등하 녹화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 조수석 바닥에 타다 남은 번개탄과 화덕이 놓여 있었다. 김씨는 승용차 안에 "빚을 져 생활고가 심하다. 괴롭다. (가족에게) 잘해줘야 하는데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집에 가면 처와 딸이 숨져 있을 것'이라는 유서를 남겼다.

유서를 본 경찰은 안근 서구 만년동 김씨의 아파트 방안에 부인(42) 과 외동딸(14·중 2) 이 숨져 있는 것을 추가로 발견했다. 승용차 안에 있던 김씨의 유서에는 "3일 전 부인, 딸과 함께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동반 자살을 시도했는데 나만 살아남았다"면서 "따라 죽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는데 잘 안 됐다"는 내용이 더 적혀 있었다. 안방에 수면제 병이 놓여 있었고, 집안에는 문틈이 테이프로 밀봉된 채 가스버관이 잘려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가 부인, 딸과 함께 자살을 하려다 실패한 뒤 도시가스 흡입 등 갖가지 방법으로 다시 자살을 시도하다 못해 되지 않자 가족이 숨진 3일 후인 지난 7일 승용차에 번개탄을 피워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자살한 것은 '동반 자살'이 아니라 '살해 후 자살'입니다.

톰스타 최면술 사망 '충격'

■ 베르테르 효과' 재연되나

또… '죽음의 전염병' 막아라

안재환 이어 잇단 연예인 자살 충격

우울증환자등 모방자살 가능성 우려

선정적 표현 자체만으로도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1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자살 방법에 대한 묘사는 자살 수단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자살 시도자에게 효과적인 자살 방법을 교육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자살 방법을 가능한 한 묘사하지 않아야 하며, 구체성을 띠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연탄가스 자살' 확산 우려

안재환 사건이후 3건 발생… '베르테르 효과' 분석도

탤런트 안재환이 차량 안에 연탄불을 피워 자살한 이후 추석 연휴 동안 이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탄가스 중독 자살 사건이 3건 발생했다.

유명인 등의 자살 여파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베르테르 효과(유명인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가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추석 당일인 14일 오후 5시께 울산시 북구 매곡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에서 김모씨(32·여)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아파트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의 차 안에서는 화덕과 연탄재 등이 발견됐다.

같은 날 오후 2시25분께 강원도 고성군 현천 해수욕장 인근 D모텔 객실에서 김모씨(36·인천시)가 숨져 있는 것을 119구급대와 경찰이 발견했다. 숨진 김씨가 투숙했던 객실에서도 피우다 남은 연탄과 화덕이 발견됐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가리피리 인근 44번 국도 옆 공터에서 박모씨(65·인천시)가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가 숨진 차량 뒷좌석에는 소주병과 연탄난로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유서의내용 등으로 미뤄 박씨가 연탄을 피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잇단 번개탄 자살…無고통·유명인 영향탓인 듯

전문가들 "베르테르 효과' 등 차단할 대책 시급"

〈발췌〉 가스 중독에 따른 자살자는 2007년 66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 262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2008년 탤런트 고(故) 안재환 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연탄불을 피우고 자살한 사실이 알려지자 모방 자살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스 중독 자살은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 2009년 721명, 2010년 641명에 이어 2011년에는 1천125건으로 2007년 66명에 비해 무려 17배나 늘어났다.

언론 보도로 인해 자살 수단과 방법이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자살 보도에서 자살 장소를 포함시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살 보도에서 특정한 장소(예: 반포대교)나 특징적인 장소(예: 지하철, 아파트 옥상)를 명시하면 그 장소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장소에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살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 보도에서 자살 장소를 밝히지 않아야 합니다.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하는 모습(왼쪽)과 투신 직전 난간을 잡고 서 있는 장면. 이 사진은 네티즌이 촬영해 트위터에 올렸다.

한강 투신 예고 성재기 씨, 마포대교서 강행

〈남성연대 대표〉

트위터에 현장 사진·글 올려 / 소방당국, 헬기 등 동원 수색 / 촬영자들 '자살 방조' 논란

한강 투신을 예고해 논란을 일으켰던 성재기(46) 남성연대 대표가 하루 만인 26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19분께 성 대표가 마포대교에서 투신했다는 신고가 서울 영등포소방서에 접수돼 소방당국은 수색을 벌였다. 수색작업에는 구조대원 30여 명과 구급차 등 차량 7대, 소방항공대 소속 헬기 1대가 동원됐다. 소방당국은 성 대표가 마포대교 중간지점 전망대 부근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15분께 성 대표의 트위터에는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반성하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마포대교 난간에서 손을 떼며 뛰어내리는 성 대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비슷한 시각 한 네티즌은 "성 대표가 마포대교에서 한강에 뛰어드는 것을 목격했다"며 직접 촬영한 현장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특히 사진 속 성 대표는 투신 직전 난간 바깥쪽을 잡고 서 있으며 남성연대 회원과 방송사 카메라 기자 등 3명이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어 자살 방조 논란이 일고 있다.

성 대표는 지난 25일 남성연대 홈페이지에 "남성연대 부채 해결을 위해 1억 원만 빌려달라" "내일 한강에서 뛰어내리겠다"는 글을 올려 인터넷 공간에서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성 대표의 투신을 우려해 전날 오후 남성연대 사무실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으나 직원이 진입을 가로막는 등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대표는 "논객이 올린 글을 갖고 왜 경찰이 개입하느냐. 나는 투신이라고만 썼지 자살이라고 쓰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남성연대

2008년 1월 출범한 남성연대는 출범 때부터 성 씨가 대표로 있으며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고 있다.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남성연대에는 반페미니즘남성해방연대와 여성부폐지운동본부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이들 역시 성 대표가 이끌던 단체다. 남성연대는 발족 이후 남성을 위한 법률 및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성가족부와 군가산점제, 성매매특별법 등의 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왔다.

"성재기 뛰어내린 곳이~"
여름철 한강 투신 잇따라…수색·구조 '진땀'

[쿠키 사회] 올여름 하루 수차례씩 한강에서 자살 기도가 잇따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구조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된 한강 자살 관련 신고 및 공조수사 요청은 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나 늘었다. 자진 귀가 등을 제외하고 실제 경찰이 출동해 구조한 것만 14건이나 된다.

지난 11일 오전 9시 10분쯤 영등포서에 "아들에게서 '더는 힘들게 살기 싫어 자살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온 뒤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려 한강으로 투신하려던 A(20) 씨를 1시간 만에 발견해 구조했다. 대입 삼수생인 A 씨는 "전날 학업 문제로 부모님께 꾸중 듣고 집을 나왔다. 친구 관계도 힘들었다"며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가 뛰어내린 마포대교가 가장 나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비슷한 시각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도 신고가 들어왔다. "한 여성이 자살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채 강물에 들어가 흉기로 자해하던 B(18·여)양을 구조했다. B양은 "혼자 서울에 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9시10분쯤에는 C(26·여) 씨가 마포대교에서 투신하려다 2시간 만에 경찰에 구조됐다. C 씨는 결혼을 반대하는 남자친구 부모 때문에 괴로웠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더위를 피해 강가를 자주 찾다보니 자살 기도가 유독 많은 편인데, 올해는 성재기 씨 투신 사건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7~8월 한강에서 목숨을 끊으려던 사람은 모두 247명이다.

2013년 여름, 언론에 부각된 마포대교에서의 투신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자살 보도의 폐해를 극대화시킵니다

자살자의 사진이나 자살 장면, 자살 장소나 방법에 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4 자살 동기를 단순화한 보도는 대부분 오보이므로 삼가야 합니다

자살은 정신 질환, 신체 질환, 약물 남용, 가족 내 불화, 대인 관계의 갈등, 생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언론이 그 중 하나의 요인을 동기로 추정하거나 단정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이해 당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살 동기를 추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유가족 및 주변 인물은 심리적 • 육체적으로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어 이들의 말만을 인용하거나 근거로 삼으면 결과적으로 오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신창원 자살 기도… 부친 사망 충격 탓?

감방서 고무장갑으로 목졸라… "죄송합니다" 메모 남겨

97년 부산교도소 탈옥… 2년여 도주행각 전국 떠들썩

신출귀몰 탈옥수

확인되지 않은 자살 동기를 추정 보도하는 것은 자칫 자살을 미화하거나,
자살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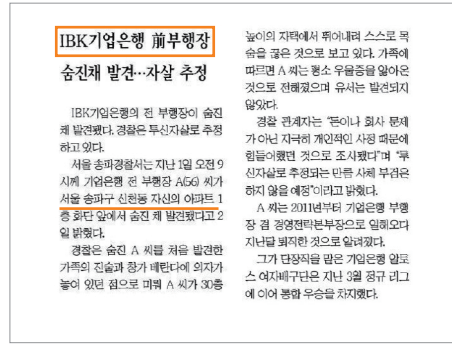
5 자살 동기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표현은 자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유 없이 자살'이나 '얼마 전까지도 행복했는데 갑자기 자살','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갑자기 자살' 등과 같이 자살이 어떤 사전 예고나 징후 없이 실행된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제4조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1 자살자와 유가족의 신분이 노출될 정보는 보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의 신상(거주지, 직업, 나이, 경력 등)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변 여건에 대한 정보 제공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유가족 중 어린이나 청소년을 가까운 이웃이나 학교 친구들이 알 수 있게 만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IBK기업은행 前부행장

숨진채 발견…자살 추정

IBK기업은행의 전 부행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투신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9시께 기업은행 전 부행장 A(56) 씨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자신의 아파트 1층 화단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숨진 A 씨를 처음 발견한 가족의 진술과 창가 베란다에 의자가 놓여 있던 점으로 미뤄 A 씨가 30층 높이의 자택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나 회사 문제가 아닌 자극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투신자살로 추정되는 만큼 사체 부검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011년부터 기업은행 부행장 겸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일하다 지난달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단장직을 맡은 기업은행 알토스 여자배구단은 지난 3월 정규 리그에 이어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보도는 자살자와 유가족 • 주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2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과 주변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슬픔과 혼란을 겪고 있는 유가족을 인터뷰하거나 촬영할 때는 유가족이 또 다른 심리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제3장
자살 보도의 사회적·거시적 영향을 인식한다

제5조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1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표현은 삼가야 합니다

'자살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 '자살이 마지막 탈출구였다' · '자살할 수 밖에 없었다' 등 자살을 정당화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2 자살과 자살자를 미화하거나 영웅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을 미화 혹은 영웅화하지 않아야 하며, '죽음으로 사랑의 결실을 이루었다'와 같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살자의 사진이나 장례식과 추모식 모습, 자살자에 대한 애도나 안타까움의 과도한 묘사는 자살 미화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살자의 유서를 소개하는 것도 자살 미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유서에 표현된 내용을 직접 인용하거나 유서의 실제 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치매 아내 4년 돌보던 80대 끝내… "이 길이 가장 행복" 마지막 동행

승용차로 저수지 빠져 동반자살
"운전 가능할 때 함께 가기로" 유서

지난 13일 오후 4시 20분께 수심이 3m가량 되는 경북 북부지역의 한 저수지 둑에서 5m쯤 들어간 수면에 승용차 1대가 지붕만 드러낸 채 잠겨 있었고, 승용차에서 30m쯤 더 들어간 물 위에는 사람이 떠 있었다.
둑 위에 있던 산불감시요원(65)이 황급히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119구조대원들이 출동해 승용차를 인양했다. 승용차 운전석에는 할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채 물에 떠 있던 사람은 할머니였다.
할아버지는 저수지 근처에 사는 ㅇ(89) 씨였고, 할머니는 아내 ㅈ(84) 씨였다. 부부의 집 안방에는 할아버지가 편지지에 자필로 쓴 유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유서에는 '미안하다. 이제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 섭섭하다. 너무나 힘들다. 내가 죽고 나면 아내는 요양원에 가야 하니까. 내가 운전할 수 있을 때 함께 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는 23만 1405㎡(7만평) 되는 넓은 사과와 복숭아 농장을 갖고 있어 형편이 넉넉했다. 5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일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아내와 금슬이 좋기로 동네에서 알려져 있었고, 이웃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해 평판이 좋았다. 나이가 들어 직접 과수원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지자, 막내아들(55) 부부가 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과수원을 경작했다.
불행은 4년 전부터 시작됐다. 건강하던 아내가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멀쩡할 때도 있었지만, 갑자기 치매 증세가 나타나면 용변도 가리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주기 싫어하자, 직접 할머니의 수발을 들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다.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게 될까 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절대 요양원 안 보낸다"며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내년이면 90살이 되는 할아버지가 언제까지 할머니를 돌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었다.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마을 주민들이 본 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리고 오후 부부는 인적이 드문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저수지 둑엔 할머니의 주인 없는 신발만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남긴 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이 길이 아버지, 어머니가 가야 할 가장 행복한 길이다."

자살자의 최후나 사후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거나 해석하는 기사는 자살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 자살의 경우, 마치 생전의 아름다움이 사후에도 유지되거나 더 강조되는 듯한 묘사는 모방 자살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6조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1 자살로 자살자가 당면한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는 사회적 인식의 가능성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수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자살한 사건의 보도에서, 자살로 인해 수사가 중단되거나 사회적 비난이 동정으로 바뀌는 등 어려움이 해소되는 듯한 보도는 사람들에게 자살이 유용하다고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벼랑 끝 압박감 극단적 선택

전 부안 부군수 등 최근 2명 스스로 목숨 끊어
전문가들 "바른 판단 가로막는 터널비전 원인"

"사건의 핵심 연루자가 목숨을 끊게 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된다"

2 자살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연결할 때 생기는 문제를 유념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 등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비판적 보도나, 자살로 인해 가시적 변화가 일어나는 등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현상에 대한 보도가 사람들에게 '자살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손쉬운 수단'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 버틸수가… 엄마·아빠 죄송해요"

"절대 용서가 안돼…엄벌 해달라"
대구 자살 중학생 母의 눈물 호소

"죄책감 없이 친구 파괴한 罪" 15세 대구 가해학생들 실형

자살자에게 자살 원인을 제공한 자가 사회적 질타와 함께 법적 처벌을 받게 된 사례

자살자에게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에 대한 비판과 비난 보도로 인해 사회가 나서서 죄를 묻고 벌을 주는 것을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살 원인 제공자를 벌 줄 목적으로 보다 손쉽게 자살을 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4장
자살을 예방하는 보도를 한다

제7조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1 자살과 자살 시도로 인한 폐해와 고통을 묘사해야 합니다

자살 보도에서는 자살에 대한 편견과 정신적 충격으로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군 자살 예방 女교관, "나 같은 자살 유가족은 없어야"

권순정 교관, 양친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아픔 극복하고 '자살예방 전도사'로 나서

4월 초순 봄 햇살이 따사로이 내리비치고 목련과 벚꽃이 화사했던 남녘의 광주 제1전투비행단. 점심시간이 막 지나 나른한 오후 1시 30분. 장병과 간부들이 자살예방교육을 받기 위해 강당에 모였다. 1시간 30분간의 교육은 500여 명의 장병들에겐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전문석 일병은 강의를 들은 후 " 주변 사람이나 지인들도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자살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더 챙기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격려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덕렬 일병은 "앞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후임이라고 일만 시키고 따는 게 아니라 힘든 후임과 관계에서 힘든 점이 있으면 대화로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사는 공군 최초의 자살예방교육 전문요원 권순정 씨. 올해 40살의 권 씨 역시 어려서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마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자살 유가족이었다.

그녀는 "저도 자살 유가족이지만 어디 가서 자살 유가족이라는 말만 하면 사람들이 전염병 환자 보듯이 한다. 또 자살자 집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어디 가서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지 물어볼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하고 정말 비참하고 가슴 아프다"고 했다.

권씨는 12살 때 어머니가 자살한 데 이어 17살 때 아버지마저 자살하고 오빠마저 사고로 죽었다. 그녀는 방직공장에 다니다 일찍 결혼했지만 남편 사업이 부도나고 남편이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더는 희망이 없었지만 사진작가의 꿈을 키우며 실의를 이겨 냈고 사진전을 열고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다.

권씨는 전투복 수선 봉사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9천 벌의 전투복을 수선해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됐다. 그러던 중 본인이 처음 자살예방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받던 중 공군에서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자살 유가족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간절한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간절한 꿈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꿈은 바로 제 앞에 앉아 있는 우리 병사들만큼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거였다"고 했다.

지난해 공군에서 자살로 세상을 뜬 군인은 9명.

권씨는 그 중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을 떠올렸다. 자살한 일병의 유품에서 권 강사의 명함이 나와 병사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 병사의 어머니에게 " 어머님, 아드님이 자살예방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했을 때 교육을 들어갔던 교관이었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우리 아들 좀 살려 달라고, 제발 우리 아들 밥 한 끼만 먹일 수 있도록 살려달라고 오열하고 계셨습니다"고 회고했다.

권 씨는 자살의 비극은 남겨진 사람들의 삶까지 파괴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녀는 강의에서 '자살은 '엄마 내가 먼저 가는 거니까 엄마도 빨리 나 따라와'라고 말해 주는 것과 같은데요. 바로 남겨진 그 가족들이 또다시 자살로 이어지고 평생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설문 조사 결과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5%에서 많게는 10%에 이른다고 한다. 500명이면 50명 가량이 자살을 생각한다는 얘기다.

주변 동료에게 관심 어린 말 한마디가 필요한 이유다.

권 씨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동료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의 강에 떠내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강둑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젠 여러분의 관심을 사랑을 관심을 그들에게 나눠 주실 차례입니다"라고 당부했다.

권 씨는 자신을 기다리는 장병 한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 부대에 저를 기다려주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 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진심 어린 약속을 했다.

권 씨는 2009년 공군 자살예방교육 전문요원으로 선발된 이래 800회에 이르는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작년 한 해 동안 190여 회로 1주에 4번 꼴로 전국 각지의 크고 작은 공군부대를 돌며 자살예방에 열정을 쏟고 있다.

자살 없는 공군, 자살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권씨는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자살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신체적 후유증(뇌 손상, 신체 마비 등)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살해 여성 '집행유예'
자살 시도로 뇌손상 장애

대전고법, 거동불편·남편과의 불화 등 참작

남편과의 불화로 4살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한 후유증으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자살이 미수에 그쳤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제8조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자살 징후와 자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야 합니다

자살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소개하고, 정확한 이해를 돕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살 징후가 무엇인지, 그러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살에 대한 잘못된 상식

가수 유니가 갑작스레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으로 자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교정국이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발간한 '수용자 자살예방을 위한 지침서'에서 소개한 '자살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눈길을 끈다.

지침서에 따르면 '정말 자살할 사람은 남에게 자살 의도를 밝히지 않는다'는 일반의 상식은 오류라는 지적이다. 그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자살할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살 의도를 타인에게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침서는 또 '자살하는 사람들은 꼭 죽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다'라는 상식도 잘못됐다고 설명한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 직전까지도 '죽을까? 말까?'라는 고민을 계속 한다는 것, 결국,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 주고, 자신을 도와주려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자살을 안 할 수 있는 이들인 만큼 관심 어린 말 한마디가 상상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당부한다.

이밖에 '한번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결국 자살하고 말 것이다'라는 그릇된 상식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닥쳐 자살 충동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자살 충동은 밀물처럼 밀려오지만, 일단 그 고비를 넘기기만 한다면 그 자살 충동은 썰물처럼 사라진다. 따라서 문제는 자살 충동이 일어날 때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고, 그 이후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한 번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그것으로 자살 의도는 다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도 착각인 만큼 "일단 한 번 자살 시도를 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매우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지침서는 마지막으로 '자살은 유전병이나 정신병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편견이라고 일축한다.

즉, 유전병이나 정신병에 기인한 자살은 확률의 문제일 뿐이고, 그 고비만 잘 넘기면 평생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 개인적 노력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 개인적 노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합니다. 자살 예방 전문 기관 등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이 도움을 얻거나 자살 징후를 발견한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자살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원

센터명	홈페이지	연락처
강원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www.gwmh.or.kr	033-251-1970
광명시자살예방센터	www.gspc.kr	02-2618-8255
경기도자살예방센터	www.mentalhealth.or.kr	031-212-0437
대구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www.dgmhc.or.kr	053-256-0199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	suicide.busaninmaum.com	051-242-2575
서울시자살예방센터	suicide.blutouch.net	02-3444-9934
성북구자살예방센터	www.salja.or.kr	02-916-9119
수원시자살예방센터	www.csp.or.kr	031-228-3279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www.icmh.or.kr	032-468-9917
전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www.jbmhc.or.kr	063-251-0650
중앙자살예방센터	www.spckorea.or.kr	02-2203-0053
천안시자살예방센터	www.caspi.or.kr	041-571-0199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www.chmhc.or.kr	041-633-9185
한국자살예방협회	www.counselling.or.kr	02-413-0892
화성시자살예방센터	www.hsmind.or.kr	031-369-2892

자살 충동이 일어났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자원(24시간)

기관명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보건복지부콜센터 희망의전화	www.129.go.kr	129
생명의전화	www.lifeline.or.kr	1588-9191
응급서비스	cyber112.police.go.kr www.119.go.kr	112,119
정신건강상담전화	www.hopeclick.or.kr	1577-0199
학교폭력근절 긴급전화	www.safe182.go.kr	117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kyci.or.kr	1388

제5장
인터넷 환경의 특성에 유의한다

제9조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1 인터넷에서 자살 보도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달 범위가 넓고 속도가 빠른 인터넷 환경에서는 자살 보도가 블로그와 SNS 등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저장될 수 있고, 보도의 맥락과는 다르게 수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댓글이 자살 보도의 부정적인 결과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세심한 관리와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인터넷에서는 자살 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더욱 높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살 보도에서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해서 제공한 개인 정보가 먼 훗날까지 남아서 해당된 사람들의 삶에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에 인터넷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장점을 활용해 자살 보도에서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나 자료에 링크를 거는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언론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정 자문 위원
(가나다순)

권영철 CBS 선임기자

김영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교육센터장

김종철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문명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이원영 중앙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